

값싸고 싱싱한 상품 즐비한 남광골목시장



남광골목시장은 가격이 저렴해 서민들이 주로 찾고 있다. 상인들과 손님들이 시장 입구에서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추억이 흐르고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가다

대연4동과 감만2동 경계지점에 자리 잡은 남광시장은 자그마한 규모의 골목시장이다.

30개 남짓한 점포가 올망졸망 모여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근 시장으로 등록되지 못한 무허가 상태며 나라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해 여러모로 환경이 열악한 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에서 약간의 예산이 나와 한 달 전 천막정비작업을 끝냈다.

남광시장 변영희장을 맡고 있는 손근섭 씨는 자랑거리를 부탁하자 “자랑할 게 별로 없습니다. 손님은 꾸준히 있는 편이지만 특별한 건 없어요. 토박이들, 서민들이 많이 살 다보니 못골시장 보다 가격대가 저렴한 편이라고나 할까요. 기복 없이 밥 먹고 사는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휴일이면 외지손님들로 북적

원래 건축 일을 하다가 IMF 무렵 부인이 시작했던 진양상회를 지금은 함께 운영하고 있단다. 전주가 고향이라 상호도 그렇게 정했다. 각종 신선야채를 취급하고 있다. 손 회장이 처음 가게를 시작할 무렵만 해도 주변에 대형마트가 없는 탓인지 매우 활기가 넘쳤다고 한다. 어찌나 빈 가게가 나오면 광고문구가 붙기도 전에 입소문으로 다 나갈 정도로

성업 중이었다고. 젊은 층은 주로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편이지만 휴일이면 젊은 사람들도 제법 북적인다. 각처에서 자식들이 찾아와 고기, 과일, 야채 등을 많이 사가기 때문이다. 지역적으로 빈촌이 많고 토박이, 소외계층이 많아 가격이 싸다는 것이 큰 장점. 또 하나. 남광시장에 특징이 있다면 떡 방앗간이 많다는 것이다. 30여 개 점포 중에 4~5개 정도라면 특이할 만하다. 이런 것도 지역적인 특성과 맞물려 있다 하겠다. 떡 방앗간을 하면 성공한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오복 떡 방앗간, 새로운 떡 방앗간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반세기 역사 자랑

변영희는 대연4동만 결성돼 있으며 감만동에 속해 있는 점포는 그 수가 1/3 수준이다. 남광시장 내 진양갑비는 이전에 청과조합자리였다고 한다. 경매도 이뤄졌을 정도로 활기가 넘쳤는데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하가를 취소한 후 지금까지 무허가 상태로 오게 된 것란다. 점포수가 50~60개 정도가 돼야 인증시장으로 허가가 나는데 남광상가아파트, 천막정비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등 자구책마련으로 분주하다. 빅세일마트 자리는 6·25전쟁 당시 고아원이었던다. 그리고 보면 남

광시장의 역사는 55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유3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소방도로가 나는 바람에 사람들의 왕래가 줄고 상권이 죽어버렸다. 현재는 겨우 시장의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

떡·어묵 즉석두부 인기

오후4시가 조금 넘는 시간. 아직 별이 따카운 탓인지 저녁 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하다. 새신라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 오기용 씨의 고기 다루는 솜씨가 날렵하다. “주로 단골손님들이 많은 편이죠. 물어보지도 않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찌개용 돼지고기가 잘나가는 편입니다”며 예전보다 훨씬 못하다고 푸념한다.

퇴직 후 5년간 대산상회를 함께 이끌어 온 안병환·박영자 씨 부부. “요즘 들어 갈치 사기는 손님들이 많아요. 무나 감자 넣고 조리먹으면 맛이 그만이죠. 고등어는 한 마리에 4~5천원 정도로 비싼 편이라 엄두를 못내는 것 같아요.” 생선 간을 할 때 천일염을 사용한다고 은근히 자랑한다.

즉석두부공장의 남강즉석두부, 손두부 만들기 15년차다. 계절 탓인지 콩국과 우뚝가사리가 특히 잘 나간다고. 이종호·윤학자 씨 부부의 급속이 콩국에 맡아먹는 우뚝가사리처럼 고소함이 넘쳐 난다.

건어물, 횡집, 숙육, 김치, 야채, 과일 등 없는 것 없이 다 있다. 참



대산상회 안병환·박영자 씨.



남강즉석두부 이종호·윤학자 씨.



20년 경력의 방앗간 주인 강용자 씨.



22년째 어묵공장 운영하고 있는 전갑숙 씨.

을 골짜기는 느낌이 든다.

23년째 어묵공장을 하고 있는 전갑숙 시장은 공장을 인수할 때 20년이 넘는 상태였기 때문에 공장역사가 50년 정도는 된다고. 남광시장의 터줏대감 격이다. 상권이 활발할 때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거의 멈춰 있는 상태라고 안타까움을 내비친다. 맛보라고 건네주는 어묵을 한 입 베어 먹으니 매콤한 맛이 입에 착 달라붙는다. 오랜 기간 어묵공장을 할 수 있었던 저력이 느껴진다. 마침 자유3차에서 시장 보러 나온 중국인 새댁 서동설 씨도 어묵 한 개를 맛보더니 능숙한 우리말로 “맛있어요” 한다.

사람냄새 물씬 서민시장

20년 경력의 방앗간 주인 강용자(69) 씨는 이튿만큼이나 활발하고 서글서글하다. 옛날을 생각하면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이전에는 상사람들로 북적였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귀하다. 향만정, 예비군훈



새신라정육점 오기용 씨.

련소, 공장 등이 빠져나간 뒤 썰렁하기만 하다. 소방도로가 생기면서 단절감도 함께 가져왔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한다.

남광시장 앞에는 20여 개의 노점상이 모여 있다. 대형 파라솔 아래 쭈그리고 앉아 손님을 기다리는 그들의 눈빛에서 삶의 고단함이 묻어난다.

사람냄새가 나는 곳. 서로 부대끼면서 흥정하고 북적이는 사람의 모습이 그림자. 남광골목시장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는 상인들의 얼굴에서 희망을 읽을 수 있어 좋았다.

한정미 기자

119 응급처치 교육 및 상설체험장 운영

■기간: 연중

■대상: 누구나

■장소: 남부소방서 용당119안전센터

■내용: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소방안전교육

■중·고생 봉사활동인정 ⇒ 청소년봉사활동(http://www.dovol.net/)



생활 속 응급처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문의: 용당119안전센터 (621-1195)

풍수해보험 사이버 퀴즈 국민참여 이벤트

■기간: '11. 7. 18(09:00)~8. 31(24:00)

■참여방법: 풍수해보험 홈페이지(www.safekorea.go.kr) 이벤트 코너 클릭

■사이버 문제: 2문항

【문제1】 풍수해보험 일반 가입자의 보험료를 정부에서 최고 몇%까지 지원 할까요?

① 42% ② 52% ③ 62% ④ 72%

【문제2】 풍수해보험 대상 재해가 아닌 것은?

① 태풍 ② 화재 ③ 호우 ④ 강풍

■당첨자 선정 및 인원: 2011. 9. 1. 15:00, 62명

■시상품: 당첨자 1인당 3만원 상당의 문화(농협)상품권 증정

■당첨자 발표: 풍수해보험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 성실 납부 지역발전 초석된다.

•납부 기간

- 7월분 재산세: 2011. 7. 16~7. 31.

- 9월분 재산세: 2011. 9. 16~9. 30.

•납부 장소

- 전국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부산시내 세마을 금고

•인터넷 납부

- Cyber지방세청 <http://etax.busan.go.kr>

- 위택스 <http://www.wetax.go.kr>

- 납부시간: 07:00~22:00(365일 연중무휴)

•신용카드 납부

- 모든 신용카드 납부 가능(공인인증서 필요)

•지방세납부계좌

이체: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과세기관 문의처

대연1, 3, 4동: 607-4204/대연2, 5, 6동: 607-4201

감만동: 607-4201/용호1, 2, 3동: 607-4205

용호4동: 607-4202/우암동: 607-4202

문현동: 607-4206/용당동: 607-4206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계곡, 강, 바다 등을 찾아 수영, 뱃놀이 등 물놀이 할 기회가 많아 집에 따라 사고 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물놀이 금지구역에서는 절대 물놀이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합니다.

물놀이 10대 안전수칙

- 수영을 하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운동을 한다.
- 물에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을 적신 후 들어간다.
- 수영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한다.
-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진 곳은 특히 주의한다.
- 구조 경험에 없는 사람은 안전구조 이전에 무모한 구조를 삼가야 한다.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사람에게 소리쳐 알리고 함부로 물에 뛰어들지 않는다.
-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의 물건을 이용한 안전구조를 한다.
-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몸이 배가 고프거나 음주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는다.
- 자신의 수영 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장시간 계속 수영하지 않으며, 호수나 강가에서는 혼자 수영을 하지 않는다.

※ 물놀이 안전사고 신고전화 ➡ 남부소방서 재난대응과 ☎ 760-4861~3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무심코 버린 폐의약품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먹다남은 약은 동네약국으로 가져오세요!!

약국에 모인 폐의약품은 안전하게 소각 처리됩니다.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민안전보호재단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약물정보학회

구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용자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원: 남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 생산가구 •생활안정자금(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의욕이 있으며 다음 용도로 자금사용을 원할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전세지번, 기타 재산으로 인한 생계 자금 -무주택자 전세금, 임주보증금 중 일부 -고교 이상의 재학생 직계비속 학자금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용자 기관	•농협중앙회(대연동지점)
용자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액: 주민소득지원금(2천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2천만원 이하) 【09.12.31부터 인상】 •이율: 연리 2% 【09.12.31부터 인하】 •기간: 2년까지 2년상환(매6월 마다 상환)(타시, 군, 구 전용 시 전액 즉시 상환)
보증인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소득지원금: 해당 금융기관 여신규정 담보대출 충족자(부산시내 거주자) •생활안정자금: 부산시내 거주,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납부자 1인
용자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 등에 제출→동장이 구에 추천→구청장이 대출대상자 적정여부 검토후 해당 금융기관 및 동장에게 통보→신청인에게 통보→구비서류 준비 금융기관에 제출
용자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지 동주민센터 •기타문의사항: 구청 주민지원과(607-4314) 또는 동주민센터